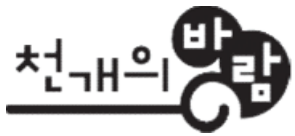


바람 어린이책 05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천개의바람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표지 탐색하기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의 제목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를 보고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책 제목과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얼굴이 콩처럼 작고 까마니까 **콩**, 가면을 쓴 것처럼 웃지도 울지도 **않으니까 가면**, 그러니까 **콩가면** 선생님!

3학년 나반 김신형 선생님은 절대 웃지 않아요. 화내지도, 울지도 않아요. 동구가 우스꽝스럽게 넘어져도, 가빈이가 짝꿍을 바꿔 달라고 떼셔도,

성인이가 아린이 머리카락을 잘라도, 늘 똑같은 얼굴이에요.

콩가면 선생님은 왜 안 웃을까요? 우리가 말썽쟁이라서 싫은 걸까요?



① 3학년 나반 '김신형 선생님'이 '콩가면 선생님'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② '콩가면 선생님'이 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지 상상하여 써 보세요.

⇒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천개의바람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가) · 아이들이 질색하자 선생님은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 아이들은 입을 비죽였어요.

· 가슴을 굽으며 왔다 갔다 안절부절못하는 동구에게 누나가 뻑 소리를 질렀어요.

· 그런데 저만치 벽에 희끄무레한 뭔가가 있었어요.

(나) · 잽싸게 식판을 내놓고 화장실로 달려갈 거예요. ㉠배 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 ㉡힘차게 급식대를 밀고 가는 지국이 뒷모습이 바보 같은 야수가 아니라 늙름한 왕자처럼 보였어요.

· ㉢옆 반 공격수들이 던지는 공이 로켓처럼 퐁퐁 지나갔지만 서연이는 슬하 손을 잡고 잘도 피해 다녔어요.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질색하다 : ____ 비죽이다 : ____ 안절부절못하다 : ____ 희끄무레하다 : ____

- ① 몹시 싫어하거나 꺼리다.
- ②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 ③ 어떤 사물의 모습이나 불빛 따위가 선명하지 아니하고 흐릿하다.
- ④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밀고 실룩이다.

2) (나)의 밑줄 친 ㉠~㉢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말을 각각 찾아 쓰세요.

⇒ ㉠ :

㉡ :

㉢ :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천개의바람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① 일요일에는 ()를 하는 엄마, 아빠가 가게에 나가서 사춘기 중2병에 걸려 특하면 성질부리는 누나랑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 ② 동구가 숙제한 걸 알면 정민이가 ()라고 화낼 거예요.
- ③ 그런데 오늘은 쫓아오는 ()가 보이지 않았어요.
- ④ “내일 미술 시간에 색지에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그리고 오려 낸 다음, 물감을 넣어서 찍을 거야. () 만들려고.”

(나) · 아이들은 선생님 말에 잠깐 솔깃했지만, 누군가 “에이, 선생님은 얼굴이 까맣잖아.” 하면서 ㉠재를 .

· 콩가면 선생님 반이 이겼어요. ㉡천하 옆 반을 무찌르고 이겼어요.

1) 낱말의 뜻과 (가)의 문맥을 고려할 때,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스텐실 : 글자나 무늬 모양을 오려 낸 구멍에 물감을 넣어 찍어 내는 기법.
- 낚시 :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
- 지물포 : 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 배신자 :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사람.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밑줄 친 ㉠, ㉡에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 ㉠ : 일, 분위기 따위를 망치거나 훼방을 놓다.
- ㉡ : 세상에 겨를 만한 적수가 없음.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천개의바람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콩가면 선생님은 웃지 않는다

다음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콩가면 좋다, 좋아!”

아이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제자리에서 폴짝 폴짝 뛰었고, 어떤 아이들은 흥분해서 책상 위로 올라섰어요.

선생님은 “내 마음에는 안 든다.”, “내가 콩만큼 까망지는 않다.”, “잘못 들으면 콩가루 같다.”라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하여 3학년 나반의 웃지 않는 김신형 선생님은 ‘콩가면 선생님’이 되었어요.

(나) “아니야, 나도 웃어. 너희도 언젠가 내가 웃는 걸 보게 될 거야.”

“정말요?” / “나는 거짓말 안 해.” / 콩가면 선생님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건, 콩가면 선생님이 웃지 않는 것만큼이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3학년 나반 아이들은 콩가면 선생님이 웃는 모습을 꼭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일까요?

1) (가)에 나타난 ‘아이들’과 ‘김신형 선생님’의 반응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아이들	김신형 선생님
선생님 별명으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이 좋다며 너도나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를 끄덕였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났고 흥분했음.	“내 마음에는 안 든다.”, “내가 <input type="text"/> 만큼 까망지는 않다.”, “잘못 들으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같다.”라고 거세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했음.

2) (나)에서 ‘콩가면 선생님’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찾아 쓰세요.

⇒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천개의바람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숙제병 / 같은 옷 다른 느낌

다음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동구가 발표를 마치자, 콩가면 선생님이 물었어요.

“㉠ 엉덩이가 간지러운 건 알겠는데, ㉡ 가슴속이 간지러운 건 어떤 느낌이지?”

아이들이 “에이, 선생님이 뭐 그런 것도 몰라요?”라고 놀렸어요. 자기들도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모르면서요. 동구도 같이 선생님을 놀렸어요. 자기도 어떤 느낌인지 설명할 수 없으면서요. / “오늘 숙제는…….”

(나) 아린이는 열린 책상 밑에서 작은 반질고리를 꺼내 왔어요. 인형 옷 만들 때 쓰라고 엄마가 지난해 어린이날에 선물해 준 거예요. 엄마는 반질고리에서 가위를 꺼내 아린이한테 내밀었어요. / “얼룩보다 크게 구름 모양으로 오려.” / 아린이가 조심조심 구름을 오리는 동안, 엄마는 어울리는 실을 골라 바늘귀에 꿰어요. 그리고 아린이가 오린 구름을 접퍼에 대고는 거침없이 바느질했어요. 큰 이모 의상실에서 가끔씩 일을 도와주는 엄마다운 솜씨였어요.

1) 윗글 (가)와 책의 29쪽을 보고, ㉠, ㉡과 같은 느낌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엉덩이가 간지러운 것	㉡ 가슴속이 간지러운 것

2) (나)에서 ‘같은 옷 다른 느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써 보세요.

⇒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천개의바람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미녀와 야수

다음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지국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두 뺨이나 키가 크고, 한 아름이나 덩치가 커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애들보다 두 뺨이나 키가 작고 한 아름이나 덩치가 작은 가빈이가 지국이와 짝궁이 된 거예요. / 아이들이 가빈이랑 지국이가 앉은 모습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미녀와 야수’예요. 가빈이는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가 미녀인 건 맞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가빈이와 지국이가 동화 속 미녀와 야수처럼 보여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함께 앉아 있는 둘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붙인 거라고요.

(나) 가빈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빨개진 얼굴로 자리에 도로 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어요. 가빈이는 울음을 참으며 입안의 달걀조림을 꾸역꾸역 삼켰어요. 엄마가 미래의 스타가 될 거라고 장담했던 진가빈인데, 이제 다 틀렸어요. 평생 방귀쟁이 진가빈으로 사람들의 놀림을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어요. / 그때였어요. / “미안, 미안.” / 지국이였어요. / “미안, 미안.”

지국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장난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그만. 헤헤.” / “야! 한지국!” / “미안, 미안.”

1) (가)를 읽고,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가빈	다른 애들보다 두 뺨이나 키가 () 한 아름이나 덩치가 (). ➔ 별명 ()
지국	다른 애들보다 두 뺨이나 키가 () 한 아름이나 덩치가 (). ➔ 별명 ()

2) (나)에서 ‘가빈이’와 ‘지국이’에게 벌어진 일을 요약해서 써 보세요.

⇒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천개의바람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비밀 탐사대의 탄생

다음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은솔이는 흔쾌히 그러자 했어요.

준혁이가 전화를 끊자마자 지훈이와 예준이가 질문을 퍼부었어요. / “어쩌려고?”

“정말 대결하려고? 어차피 개들 못 이겨. 여경이 지난달에 태권도 삼 품 땀대.”

“걱정 마. ㉠힘으로 싸울 거 아니니까.” / 준혁이가 씩 웃었어요. / “차은솔, 죽었어!”

(나) 콩가면 선생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들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위험하게?” / 그제야 다섯 아이는 콩가면 선생님이 화가 났다는 걸 눈치챘어요. 좀체 화를 안 내는 콩가면 선생님인데 말이죠. 아이들은 기가 죽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준혁이와 은솔이는 고개를 숙인 채 덜덜 떨었어요. 아직도 무서움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안 되겠다. 교실로 따라와.” / 콩가면 선생님은 교실로 돌아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따뜻한 물을 마시자, 준혁이와 은솔이는 겨우 떨리는 걸 멈출 수 있었어요. 그사이에 세 아이들은 콩가면 선생님에게 자기들이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 콩가면 선생님은 잠자코 다 듣고 나더니, 준혁이와 은솔이한테 물었어요. / “그래서 그곳에서 뭘 봤지?”

1) (가)에서 ‘준혁이’와 ‘은솔이’가 할 수 있는 ㉠과 같은 대결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여 써 보세요.

⇒

2) ㉠ (나)에서 ‘콩가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요약하여 쓰세요. ㉡ 이러한 ‘콩가면 선생님’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천개의바람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선물 / 생일에

다음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콩가면 선생님한테 선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성인은 콩가면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떨쳐 버리려고 했어요. /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어요. 자꾸 생각이 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짜증이 났어요. 맨날 집에 가는 길에 슈퍼에 들어서 군것질하는 예준이를 보니 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예준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툭 쳐서 땅에 떨어뜨리게 했어요. 새 옷을 입고 와서는 모델처럼 뽐내며 왔다 갔다 하는 잔디가 짜증이 나서, 가위로 치마 끝을 싹둑 잘랐어요. 호수가 종이접기 상자를 가져와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있을 때 일부러 그 위로 넘어져서 종이를 구겼고요.

(나) 슬하는 조심조심 꽃 그림을 받았어요. 그림이 구겨질까 봐 겁이 났어요.

“여기다 끼워서 가.” / 꽃 그림을 어찌지 못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세영이가 두꺼운 종이 두 장을 내밀었어요.

“고마워.” / 슬하는 기뻐했어요. / ‘예쁜 꽃 그림을 선물 받을 줄 알고 설렘나 봐.’

1) (가)에서 ‘성인이’가 짜증이 난 이유와 그로 인해 친구들에게 한 장난을 쓰세요.

⇒ 짜증이 난 이유 :

①	②	③
---	---	---

2) (나)에서 ‘슬하’가 생일 전날부터 설렘고 생일에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지 쓰세요.

⇒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천개의바람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다음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왜들 놀라? 내가 웃는 거 보게 될 거라고 했잖아.” / 콩가면 선생님이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어요. 동구가 번쩍 손을 들고 말했어요. / “선생님! 웃으니까 예뻐요.” /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콩가면 선생님이 더 활짝 웃었어요. 가지런한 하얀 이가 진주처럼 빛났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웃었다면, ‘진주가면’이라는 별명도 어울렸을 거예요.

“선생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 아린이가 물었어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콩가면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오늘 방학식 하잖아. 내일부터 여름방학이고. 신나다!” / 아이들은 기가 막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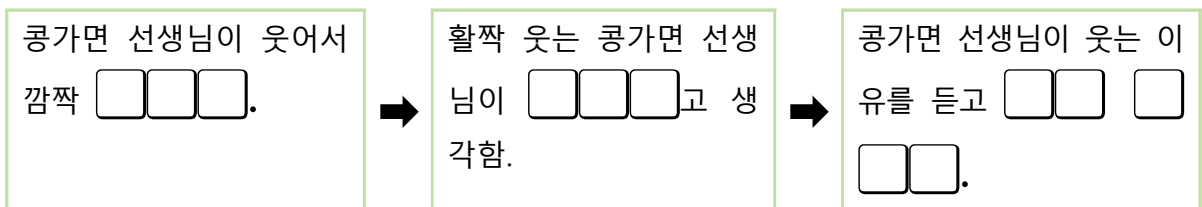
(나) “선생님은 무슨 계획 있으세요?” / 은기가 질문하자, 아이들 모두 콩가면 선생님을 뵈히 쳐다봤어요. 콩가면 선생님은 숙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듣고 싶어?” / “네!” / 아이들이 입을 맞춰 한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비밀이지만, 특별히 말해 주지.” / 아이들은 고개를 내밀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콩가면 선생님이 두 손을 입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게, 으, 름, 피, 우, 기.” / “와하하!”

1) (가)에 나타난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세요.



2) 윗글에 나타난 ‘콩가면 선생님’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



콩가면 선생님이 웃었다

천개의바람 | 윤여림 글 / 김유대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예시답안) 1) 선생님의 별명이 왜 ‘콩가면’인지, 왜 ‘웃었다’는 것인지 궁금했다. 2) 가운데에 있는 콩가면 선생님을 웃기기 위해 아이들이 선생님의 입을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있고 겨드랑이와 발바닥을 간질이고 있다. 책 제목은 2행으로 쓰여 있고 ‘웃었’의 각 ‘ㅇ’에 웃는 표정이 그려져 있다. 3) ① 얼굴이 콩처럼 작고 까매서 콩, 가면을 쓴 것처럼 절대 웃지 않고 늘 똑같은 얼굴이니까 가면, 그래서 콩가면 선생님이 된 것이다. ② 아이들이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거나 말썽을 부릴 때에도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콩가면 선생님이 웃지 않을 것이다.
2쪽	1) 질색하다 : ①, 비죽이다 : ④, 안절부절못하다 : ②, 희끄무레하다 : ③ 2) ㉠ : 천둥, ㉡ : 능름한 왕자, ㉢ : 로켓
3쪽	1) ① 지물포, ② 배신자, ③ 깡새, ④ 스텐실 2) ㉠ : 뿌렸어요, ㉡ : 무적
4쪽	1) 아이들 : 콩가면, 고개 / 김신형 선생님 : 콩, 콩가루, 향의 2) • 콩가면 선생님은 거짓말을 안 한다. • 콩가면 선생님이 웃지 않는다.
5쪽	1) ㉠ 영덩이가 간지러운 것 : 숙제를 하기 싫어서 의자에 오래 앉지 못하는 것 ㉡ 가슴속이 간지러운 것 : 숙제를 안 하려고 하니까 가슴속 양심이 가책을 받는 것 2) 아린이가 오린 구름을 엄마가 점퍼의 얼룩 부분에 대고 바느질해서 같은 옷이지만 다른 느낌이라는 것이다.
6쪽	1) 가빈 : 작고, 작음, 미녀 / 지국 : 크고, 큼, 야수 2) 가빈이가 방귀를 끼어서 창피해하며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지국이가 자신이 방귀를 끼었다고 말하며 가빈이가 방귀 편 것을 감싸주고 있다.
7쪽	1) (예시답안) 끝말잇기로 대결하기, 가위바위보로 대결하기, 달리기로 대결하기 등 2) (예시답안) ① 콩가면 선생님은 아이들이 위험한 별관 건물에 있다고 화를 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물을 주고, 그들의 설명을 들어주고 있다. ② 이러한 모습은 진정으로 아이들을 걱정하고 보살펴주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따뜻한 선생님 같다.
8쪽	1) 짜증이 난 이유 : 콩가면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① 예준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툭 쳐서 땅에 떨어뜨리게 했다. ② 새 옷을 입고 와서 모델처럼 뽐내는 잔디의 치마 끝을 가위로 싹둑 잘랐다. ③ 호수가 종이접기 상자를 가져와 보여 주고 있을 때 일부러 넘어져서 종이를 구겼다. 2) 슬하의 생일에 세영이에게 예쁜 꽃 그림을 선물 받아서
9쪽	1) 놀랐음, 예쁘다, 기가 막혔음 2) (예시답안) 콩가면 선생님이 웃는 이유가 내일부터 여름방학이기 때문이고 방학 계획이 게으름 피우기라고 했다. 이러한 선생님의 모습은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철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